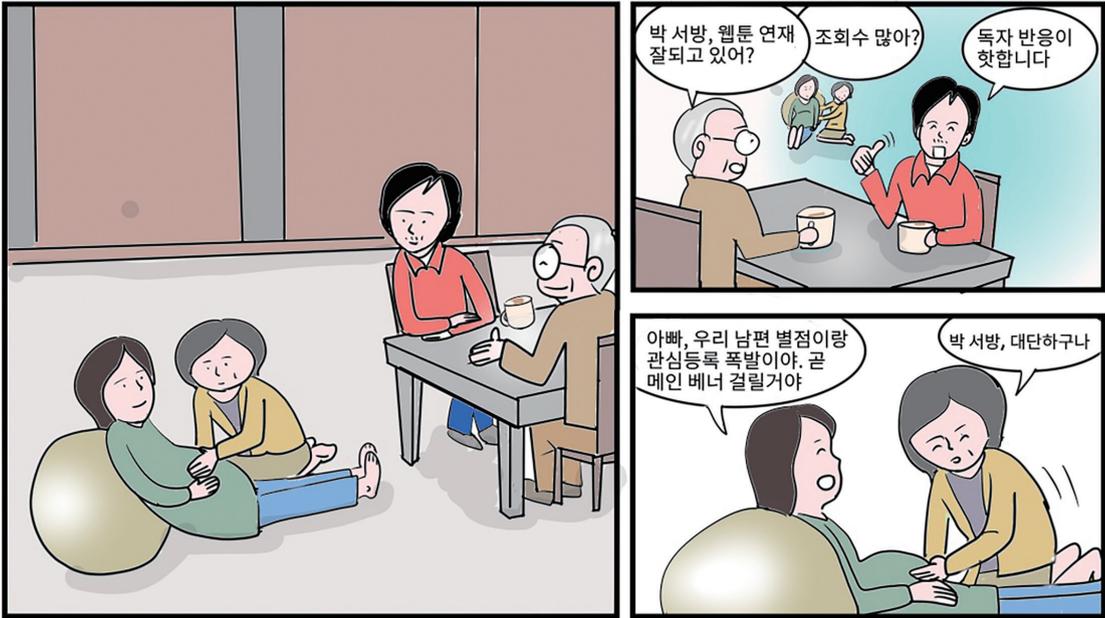


직장생활과 육아·돌봄 등의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<일가정양립 지원제도> 꾸준히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는 멀게 느껴져 노동자 모두의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각지대 해소에 힘을 모아야

글·그림 정동섭





\*다태어는 120일

